

# 鄭측 “공천 배제땀 탈당” 지도부 압박

## 민주 전략공천싸고 계파 갈등 고조 주류측 “당 결정 따라야” 선택 강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전주 덕진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분당'까지 거론되는 등 민주당의 내홍이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당내 주류 측에서는 전략공천 카드에 정 전 장관의 선출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 전 장관 측은 '탈당' 배수진을 치며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19일 정동영 전 장관 측에서는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카드에 대한 비판은 물론 탈당을 언급하는 등 전면전에 나섰다.

정 전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영선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전략공천 결정이) 만의 하나 어떤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됐든가 특정한 공천배제에 당 장악력을 높여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이어 "과거 박근혜 전 대표가 이회창 총재 시절 불화로 인해 탈당한 적이 있다"며 "당시 불화가

평장허 커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했다"고 말해,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정 전 장관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 뒤 복당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비주류 연합 성격의 '민주연대'를 만들고 있는 이종걸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주 덕진은 전략공천하면서 바로 옆 앞산은 전략공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 전 장관의 공천신경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분당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 전 장관 지지조직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 전 장관의 덕진 출마는 당원과 국민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며 전략공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정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회도 전날 회의를 열어, 정 전 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추경과 서민 추경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필뉴스

이에 대해 민주당 주류 측에서는 당에서 전략공천을 결정한 만큼, 모든 것은 정 전 장관의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다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강경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고위 당직을 맡고 있는 광주지역 모 의원은 "정 전 장관 측에서는 섭섭할지 몰라도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하

는 것이 순리"라며 "공천에서 배제되더라도 정 전 장관이 탈당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세균 대표 측 핵심 인사는 "작금의 사태는 정 전 장관의 성급한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정 전 장관이 당의 결정을 거부하고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원로·중진급 인사들이 막판 중재에 나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여론조사 등 중재안을 마련, 양 측이 결과에 승복하는 방법으로 전주 덕진 공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힘을 합쳐도 부족한 판에 공천을 두고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얼굴을 들 수 없다"며 "그러나 여기서 분열한다면 모두 공멸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 당 차원 협력”

### 한나라 임태희 정책위의장



시장으로부터 '2012여수세계박람회 명예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은 임 의장은 "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9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열린 '엑스포 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에서 강연한 임 의장은 "한나라당 차원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의 약속은 최근 아쿠아리움 등 대형사업 민자유치 무산과 엑스포 개최시기에 같이 열리는 네달란드 화해 박람회 등으로 인해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협력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는 등 대시민 약속을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시장과 시민들의 환대를 받고 강한 압력을 느꼈다"고 운을 뗀 뒤 "처음 방문했음에도 명예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보니 여수시민들이 한 식구처럼 여겨지는 등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젠 2012여수세계박람회 명예홍보대사로서 당에 들어가면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협력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는 등 대시민 약속을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여수=박영규기자 ypark@

## 평가 라운지

### 문화수도특위 '빈껍데기 성명' 빈축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위원장 양혜령)가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성명'을 발표, 빈축을 사고 있다.

결어낼 수 있는 절차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데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공허한 의견만 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한나라 희망센터 현판식

19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민주정신이 충만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옛 도청 별관 철거 문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피력했다.

### 한나라 희망센터 현판식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19일 당사에서 '한나라 희망센터' 현판식을 갖고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와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수도특위는 "최근 별관 철거문제와 관련, 5월단체 일부 회원들의 불미스런 행동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광주시민이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공직자와 자부심을 갖도록 이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희망센터"는 앞으로 경제난 속에서 발생하는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읍·면·동 등 기초단위 복지행정의 미흡한 점을 찾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당 내에 센터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하고 도당 산하 각 지역별 지부에 10명 이상으로 실태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도청별관 철거 문제가 대중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시민들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기룡 도당 위원장은 "희망센터는 기존 복지행정의 대상자로 잡히지 않지만 최근의 경제 위기가 갑자기 생활고에 빠진 '신빈곤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역 복지센터 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진상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복지행정 일선의 업무 현황과 목소리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명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영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시의원, 광주 북을 1명 줄고 광산을 1명 늘어

### 민주당 지방의원 선거구 개정안 ... 전남도의원 3명 증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19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상 민주당 안으로서 이제부터 여야의 합의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지난 200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논의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 원칙=개정안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있어 현재가 제시한 상한과 하한인구수의 비율인 4대1을 기준으로 하되 현행 정수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결과 강 의원의 선거구 수는 42%를 최소 1인 의원을 둘 수 있는 기준으로 했다. 이보다 작게 하면 의원 수가 대폭 늘고, 반대로 크게 하면 의원 수가 많이 줄어

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선거구별 (광역)시·도의원 수를 광역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지난해 10월 인구 기준)를 100으로 보고 선거구인구가 평균인구의 ▲42% 미만일 때는 1명 ▲42% 이상~168% 미만은 2명 ▲168% 초과~252% 이하는 3명 ▲252% 초과~336% 이하는 4명 ▲336% 초과는 5명 등으로 정했다.

◇조정 결과=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현재 3명의 광역의원이 있는 북구들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반면, 국회의원구와 광역의원 정수가 같은 광산구들이 2명으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선출직 전체 정원 16명을 유지한다.

전남의 경우 목포와 순천시가 전남도의 평균인구 8만3천503명의 293.4%와 323.2%가 각각 돼 4명의 광역의원을 두게 됨에 따라 현행 2명에

서 2명이 늘어나게 된다. 또 여수시율은 188.6%, 광양시는 168.3%로 각각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한다.

◇희비 교차하는 지역=개정안대로라면 광산시는 기존보다 251명이 많아 의원 정수를 1명 늘렸지만 진도군은 502명이 부족해 의원 1명을 잃게 된다. 광양시의 현(지난해 10월 기준) 인구는 14만599명으로 전남 평균인구의 168.3%다. 이는 개정안이 정한 3명 기준을 0.3%포인트 초과하는 수치다. 결국, 0.3%에 해당하는 251명이 광양에 도의원 한 명을 유지했다. 반면, 진도군의 인구는 3만4천549명으로 전남도 평균의 41.4%에 불과했다. 이는 개정안의 2명 의원 기준 42%에 0.6%포인트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이를 인구 수로 환산하면 504명이다.

또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지역구인 무주·진안·장수·임실지역은 현행 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어 가장 큰 삭감 지역구가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강기정 의원 오늘 광주서 복지 지원금 개선 간담회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지원금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0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 북구청에서 '복지 전담체계 개선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런 간담회에서는 복지보조금 비리 발생 원인과 광주·전남에서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개선 방안 등에 토론을 벌인다.

강 의원은 "진상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복지행정 일선의 업무 현황과 목소리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 경 찰

수시접수중 (종합 및 문제풀이)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1년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2개월 완성 6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영어 기본이 인턴 수강생 한함
• 수강료 교재 25% D/C	• 수강료 50% D/C 교재 25% D/C

※ 종합 1개월 :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 13만원 · 단과 : 9만원

www.gmega.co.kr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48년의 전통! 오랜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다!! =

# 7.9급 공무원 전직력

응직종문제풀이 4주 해교서관김범길김마철교보보관복소기 합후 소방인력 8395명 지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인원 {국가직 9급 2320명, 7급 600여명 공채} 4월 1일 (주·야 행방 모의) (현재상당접수중)

개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법, 형소법, 교정학, 헌법, 복지학, 민사법, 소방법, 보건학, 상의,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222-4560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www.damyang.co.kr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알뜰상 210,000원 ▶오품상 350,000원 ▶소가죽상 450,000원

전통의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

문의전화. 061-383-8283 직접배송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180-1번지 대표이사 박순애